

올리비에 라트리
OLIVIER LATRY
오르간 리사이틀

2023
ORGAN
SERIES IOLIVIER
LATRY올리비에 라트리에
오르간 리사이틀

2023. 5.16 TUE 7:30PM 롯데콘서트홀

ABOUT THE CONCERT

노트르담에서 온 오르간 대사

올리비에 라트리에 오르간 리사이틀

롯데콘서트홀에 들어서는 순간, 한 눈에 들어오는 파이프오르간의 거대한 위용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깁니다. 게다가 화려한 조명을 받아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오천여 개의 파이프들과 그 사이를 넘나드는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가 온몸을 감싸면 짜릿한 전율마저 흐릅니다.

국내 최고의 파이프오르간과의 강렬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황홀한 시간, 롯데콘서트홀의 2023년 오르간 시리즈에서는 깊고 진중한 오르간의 본질을 탐구해 가는 거장 올리비에 라트리에의 무대, 그리고 개성과 파격으로 무장하며 감각적이고 친숙한 오르간 음악을 선보이는 스콧 브라더스 듀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프오르간, 악기는 동일하지만 두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음악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과거와 현대, 전통과 혁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변화무쌍한 파이프오르간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나며 그곳에서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할 날을 꿈꾸던 스물세 살의 청년 올리비에 라트리에의 1985년,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오르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상임 오르가니스트가 된 후, 라트리에의 오르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 재직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오르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간 대사’를 자처하며 세계를 누비는 올리비에 라트리에가 오늘 밤 또 한 번의 감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그너와 리스트, 생상스 등의 유명한 작품을 파이프오르간의 음색으로 재탄생 시킨 연주를 들려줄 오늘 공연에서 파이프오르간의 신비로운 매력에 흠뻑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1부

바그너 R. WAGNER (1813-1883) / **르메이** E. LEMARE (1865-1934)

오페라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중 1막 서곡, 작품번호 63
Der fliegende Hollander, 'Ouverture', WWV 63

리스트 F. LISZT (1811-1886) / **생상스** C. SAINT-SAËNS (1835-1921)

두 개의 전설 중 I. 새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작품번호 175
1ère Légende : « La prédication aux oiseaux, S. 175 »

생상스 C. SAINT-SAËNS (1835-1921)

<동물의 사육제> 발췌 (편곡 Shin-Young LEE)

Extraits du « Carnaval des Animaux » (Transcr. Shin-Young LEE)

· No.7 아쿠아리움 (Aquarium) · No.10 큰 새장 (Volière) · No.13 백조 (Cygne)

프랑크 C. FRANCK (1822-1890)

오르간을 위한 영웅적 소품, 작품번호 37

Pièce héroïque, FWV 37

INTERMISSION

비도르 C. WIDOR (1844-1937)

오르간 심포니 제5번, f단조, 작품번호 42-1

5ème Symphonie : I. 알레그로 비바체 (Allegro vivace)

II. 알레그로 칸타빌레 (Allegro cantabile)

III. 안단테 콰시 알레그레토 (Andantino quasi allegretto)

IV. 아다지오 (Adagio)

V. 토카타 (Toccata)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progra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Son

올리비에 라트리 | Olivier Latry

현존하는 최정상의 오르가니스트로서 전 세계에 널리 오르간을 알리는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올리비에 라트리는, 세계 각국의 공연장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때로는 최고의 지휘자들이 이끄는 탑 클래스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 무대에 서기도 하고, 유명 레이블과의 협업을 통해 수많은 명반을 발매하기도 하는 등 무수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23세에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전속 오르가니스트, 2012년에는 몬트리올 국립 오케스트라의 명예 오르가니스트로 각각 임명된 그는 명실상부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기량을 가진, 모험심 강하며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오르가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올리비에 라트리는 베를린 필하모니, 필하모니 드 파리, 디즈니 홀,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홀,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빈 뮤직페라인, KKL 루체른, 로열 알버트 홀 등 세계적인 공연장의 무대에 정기적으로 오르고 있다. 또한 정명훈, 안드리스 넬슨스, 예사-페카 살로넨,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켄트 나가노 등의 저명한 지휘자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러스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등의 솔리스트로도 함께 공연해오고 있으며 드레스덴 필하모니에서는 2017-2019 시즌 및 21/22 시즌 무려 두 차례나 상주 음악가를 지내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는, 예사-페카 살로넨의 오르간 협주곡을 살로넨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함께 초연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등과의 연주 역시 시즌 하이라이트로 예정되어 있다.

프렌치 오르간 작품에 대해 특히 큰 애정을 가진 그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함께 메시앙의 오르간 전곡을 음반으로 발매했고 같은 레퍼토리로 파리, 런던, 뉴욕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2005년에는 마찬가지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세자르 프랑크의 작품으로 음반을 발매했으며, 2013년에는 노트르담 성당의 역대 오르가니스트들이 작곡한 작품을 한데 모은 '노트르담 대성당, 300년 역사의 오르간(Trois Siècles d'Orgue à Notre-Dame de Paris)'을 나이브 레이블(Naïve label)을 통해 발매했다. 2016년 워너 뮤직을 통해 필하모니 드 파리의 리거 오르간으로 연주한 작품들을, 2019년에는 '바흐 투 더 퓨처'라는 제목의 앨범을 레이블 라 돌체 비타와 발매했다. 노트르담 대 성당의 오르간에서 녹음된 이 앨범은, 바흐의 오리지널 작품 및 그가 편곡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가스통 리테즈의 제자였던 라트리는 현재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후학을 양성 중이다.

바그너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중 1막 서곡, 작품번호 63 (편곡 E.Lemare)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방향하는 네덜란드인>은 그의 이름을 알린 최초의 오페라이다. 주인공 네덜란드인 선장은 저주 받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바다를 떠돌며 살고 있는데 7년에 한번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인을 찾기 위해 육지로 돌아온다는 전설 속의 인물이다. 바그너는 대사와 가사로 극을 전개시키기 보다는 음악을 통해 관객에게 극적 상황과 등장인물의 심적 상태를 대변해준다. 반복되는 주제 선율로 배우의 감정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정서나 감정을 대신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 유도 동기(라이트모티브)라고 한다.

서곡은 네덜란드인을 부르는듯 금관악기 소리의 유도 동기로 시작되고 현악기의 역동적인 멜로디와 반음계적인 화성은 방향하는 네덜란드인의 유도 동기로서 리듬이 빠르고 느려지는 식으로 속도와 긴장, 강약과 음색 등의 변형과 함께 진행된다.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의 역할을 오르간 연주자의 두 손과 발로 다양한 음색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오르간을 ‘악기 중의 왕’ 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와 오르간의 정수(essence)를 잘 보여줄 것이다.

리스트 두 개의 전설 중 I. 새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작품번호 175 (편곡 C.Saint-Saëns)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 중에는 종교적 색채를 지니며 교회에 관한 제목과 종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두 개의 전설(Deux Légendes)>은 그의 후기 작품으로 리스트가 화려했던 전성기 이후의 성직자로 지낼 때 작곡된 표제 음악이다. 그 중 첫 번째 작품인 <새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St. Francois d'Assise la prédication aux oiseaux)>는 성인 프란체스코가 새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곡으로 문학과 음악적 요소들이 잘 융화되어 있다. 서주부와 종결구가 첨가된 세부분 형식으로 아르페지오 음형의 반복과 트릴 및 트레몰로, 반음계적 진행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새들의 지저귀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여러가지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선율로는 성인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기 낭만주의의 시대적 특징인 9, 11 화음이 많이 나타난다. 작은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하는 고음역의 트릴과 트레몰로가 자주 등장한다.

리스트는 작품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곡의 규모가 작아 내용을 표현하기에 제한적이며,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상 이 곡의 분위기와 고유의 음색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의 성스러운 업적을 형편있게 만든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생상스의 편곡으로 들어보는 이 곡은 악기의 특성상 이 곡의 분위기와 고유의 음색을 만드는데 한계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발채 (편곡 Shin-Young Lee)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생상의 친구인 첼리스트 샤를 르부크(Charles Lebouc)가 주최하는 마르디 그라(Mardi Gras)의 음악회를 위해 작곡되었다.

총 14개의 짧은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여러가지 동물의 음악적 이미지에 비유하여 축제 기분을 나타내며 한편 세속이나 딱딱한 비평가들을 풍자하는 해학적 분위기가 가득한 표제모음곡이다. 생상스는 이 작품이 출판되어 알려지면 진지한 작곡가라는 명성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생전에는 악보를 출판하지 않았고 정작 그가 죽은 후 널리 유명해졌다.

No.7 아쿠아리움(Aquarium) 독특한 음색들과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고요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No.10 큰 새장(Voliere) 큰 새장 속의 다양한 새들의 지저귀는 모습을 묘사하는 곡으로 높은 음역에서의 트릴은 마치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를, 그리고 종지부의 ppp 반음계적 상행 패시지는 새들이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한다.

No.13 백조(Cygne) 동물의 사육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으로 생상스가 죽기 전에 출판을 허락한 곡은 <백조>뿐이었다. 앞의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했던 두 곡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곡으로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묘사한다.

프랑크 오르간을 위한 영웅적 소품, 작품번호 37

프랑크는 19세기 프랑스 낭만 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로서 프랑스 교향악적 오르간 악파가 발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영웅’은 1878년 파리 트레까데오(Trocadero) 궁에 지어진 오르간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작곡되었다. 이 곡은 두 개의 다른 분위기의 주제가 번갈아 가며 나오며 순환형식 구조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프랑크 음악의 특징이기도 하다.

첫 번째 주제는 b단조로 오른손의 반복되는 화성과 함께 왼손에서 나오며 마치 영웅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된다.

이와 반대로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두 번째 주제는 B 장조로 소프라노 성부에서 나타난다. 주제 선율이 제시될 때 함께 나오는 선율에서 상, 하행의 반음계, 단조와 장조의 진행이 번갈아 나오며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영웅들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듯 B 장조로 웅장하게 마무리 된다.

비도르 오르간 심포니 제5번, f단조, 작품번호 42-1

샤를 마리 비도르는 10곡의 오르간 심포니를 작곡했고 ‘오르간 심포니(Organ Symphon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오르간 심포니(Organ Symphony)’는 19세기 낭만 시대 프랑스 오르간 음악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이 시기에 작곡된 오르간 작품들은 오르간을 하나의 오케스트라 개념으로 보았다.

비도르의 작품들은 작곡 시기와 작품 번호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연주되는 Op.4의 5번은 두 번째 시기에 작곡된 곡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오르간의 매력이 잘 표현되어 자주 연주되는 대표적인 곡이다. 이 시기 그는 초기 작품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했으며 화려하고 기교적인 면모들을 드러내었는데 특히 터치와 음색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을 나타내며 다이내믹의 범위가 pp-fff로 연장되었다.

1악장은 하나의 주제와 5개의 변주, 코다로 이루어져 있고 변주마다 리듬, 빠르기, 선율, 화성이 전체적으로 변주된다.

행진곡풍 리듬으로 생기 있게 시작하고 제 1변주는 상성부가 주제를 연주하고 반주부에서 8분 음표가 흐르듯 연주되며 제 2변주와 3 변주는 오른손 주제의 리듬, 속도에 변화를 주며 왼손 주제의 대위법적 진행이 나타난다. 제 4변주는 앞의 세 개의 변주들과 다르게 템포가 느려지면서 4분 음표 위주로 바뀌었고 짜임새는 두꺼워졌으며 주제가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제 5변주부터 템포도 빨라지며 주제 선율이 확실히 나타난다. 주제는 확장되어가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며 마지막에 주제 선율이 다시 한번 강조된 후 fff로 악장은 끝맺는다.

2악장은 3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입 부분의 유니즌이 노래한 후에 감미롭게 노래를 받은 솔로 선율은 오보에 음색으로 연주된다. 플룻 음색의 선율이 오보에의 멜로디와 서로 합쳐졌다가 또 교대로 나오길 반복한다. 두번째 부분은 첫번째 주제와 연관있는 플룻 음색의 우아한 선율이 흐른 뒤 그 다음 스타카토로 나오는 페달 부분이 주제 표현을 더해준다. 세번째 부분은 아르페지오 페시지가 에코 효과를 이끌어내고 뒤이어 첫 번째 부분을 짧은 길이로 반복하며 끝난다.

3악장은 론도형식 페달에서 주제를 연주하고 주제 선율이 연주된 후 페달 포인트가 연결되어 주제의 확장을 가져온다. 주제는 오른손 알토 선율이 이어서 연주하고 확장되어 다시 페달에서 그대로 모방하며 A를 마감한다. 빠른 템포로 변화된 B 부분은 페달의 스타카토 음형이 주제 선율의 변주 형태로 진행되며 부속화음의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 조성이 계속 변화한다. A'는 페달에서 주제 선율이 나타나며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연결되는 아르페지오는 주제를 더 아름답게 해주며 p로 조용하게 마무리 된다.

4악장 아다지오는 A-B-A'의 3부분 형식으로 31마디의 짧은 악장이다. 푸가 형태의 분위기를 띄고 여러번의 전조를 통해 짧은 악장 안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악장 토카타는 비도르의 오르간 심포니 중 유일하게 토카타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도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자주 연주되는 악장이다. 오른손의 스타카토 16분 음표의 분산화음과 왼손의 8분음표의 화음 진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며 화려하게 발전해간다. 주제는 페달에서 나오고 중간 부분에서 pp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크레센도 되어 fff로 웅장하게 끝맺는다.

오르가니스트 유아라

THANK YOU

롯데문화재단은
아래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3년
후원사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롯데정밀화학 롯데렌탈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7-ELEVEN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캐피탈 HOTEL LOTTE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알미늄 UNIQLO LifeWear

LOTTE GRS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대흥기획

롯데문화재단